

KCC, 만도 지분 처분으로 “대박”

처분이익 5000억원 넘고 주가까지 강세 ...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

KCC가 만도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서 양사 주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

KCC는 큰 차익을 거둔 요인으로, 만도는 대량매물 부담(오버행)을 털어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15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KCC는 오전 11시30분 현재 9500원(2.82%) 오른 34만6000원에 거래됐다. KCC는 7월14일 만도 지분 매각으로 3년 6개월만에 5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았다.

2008년 초 범 현대가의 일원으로 한라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덜란드계 투자회사 선세이지로부터 만도 지분 81.9%를 인수해 6370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당시 만도가 투자한 금액은 2670억원이었다.

증권업계는 KCC가 거둔 차익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KCC의 만도 지분 매각을 전략적으로 긍정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목표주가를 48만7000원으로 높였다.

KCC가 보유하던 만도 지분은 어차피 핵심자산이 아니었으며 지분 처분으로 얻은 차익은 폴리실리콘 사업을 포함한 신사업 투자에 쓰일 것이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관측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15>